구원의 반대인 자기상실 방지법

(열왕기상 20:31~43)

42.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3.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반대인 자기상실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의 반대인 자기상실 방지법'
세상에서 두려운 일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입니다.
상실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최근의 뉴스가 있었는데 롯데그룹의 2인자 부회장님이 검찰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용산구에 있는 대형교회의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자살은 절대로 기독교 진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괴로운 심정을 백분 이해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매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나중의 보도를 보니 CCTV에 찍힌 그분의 차의 이동경로가 드러났습니다. 자살할 곳으로 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기를 두 번 반복한 끝에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조사를 받음으로서 밝혀질 일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자살하신 분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조사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죽음을 결심하지만 정작 죽으려니 죽음 또한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해보면 마음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자아상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를 상실하기 때문인데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아 상실은 도무지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두려움이 없고 그저 추상적으로 들릴 뿐인데, 돈 십만 원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체감이 되질 않습니다.
돈 체면 건강 명예 재산 사업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피부에 확확 와 닿는데, 자아상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느끼지 못합니다.

재산을 상실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재산을 상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이 상실됨으로서 자아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상실되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가족이 상실됨으로서 자아가 상실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두려움의 감정을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두려움의 감정은 본래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상실할 때에 나타납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두렵지만 자아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재산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유도 애인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잃는 것이 두려운 이유도 건강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으로서 나를 잃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자아상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상실을 두려워하는 대상인 돈 건강 재산 가족 등을 잃을 때에 자아를 잃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고, 그것이 두려움의 원천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나'라는 의식만으로는 나일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의식 속에는 내용물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이고, 어떤 회사의 직원이고, 어떤 교회의 목사이고, 선생이고 등등의 내용이 있어야 내가 됩니다. 이러한 나는 '너'라는 대상을 통해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딸의 자아의식이 있다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자아의식이 있다면 제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너를 통해서 자아의식의 내용을 갖게 됩니다.
불가에서의 이상적인 상태는 이 '나'라는 의식이 빈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괴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너로 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면 그 안에는 자녀로 인한 수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다 인연과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버림으로 '나'라는 의식은 텅 비게 됩니다. 이것을 성불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기만이고 자기세뇌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사람은 평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재산이라는 대상에게 내가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에 두렵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녀 자체의 상실이 아니라, 자녀에게 마음을 둔 부모로서의 나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지면서 재산의 소유주라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아내 자체가 없어져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내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내가 없어져서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구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원한 형벌은 자아의 상실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육체 때문에 관계를 맺습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 재산과도 육체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육체가 사라지면 이 관계가 다 사라지면서 '나'라는 의식 속에 들어있던 나의 내용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에는 '나'라는 의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지므로 거기에는 공허와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르게 되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 만나게 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내용을 채우지 않고,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너로 모시고 나의 의식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위치에 모셨기 때문에 육체가 죽더라도 나라는 내용은 하나도 상실되지 않는데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아상실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휴지가 되어버렸다면 내 마음이 휴지가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자아상실의 두려움인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무서운 일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전쟁으로 아합은 두 번이나 벤하닷에게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재기할 힘이 없어진 벤하닷과 신하들이 아합 왕에게 와서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목숨을 애걸합니다. 그것을 본 아합은 벤하닷을 불러다가 '이는 내 형제이니라'고 자기 병거 위에 나란히 세웁니다. 대신에 벤하닷은 자신의 부친이 아합의 부친에게서 빼앗았던 성을 돌려주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아람 땅에서의 무역의 특혜를 주는 약조를 하여 화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합의 행동에 대해 선지자가 끝까지 '네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며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멋진 왕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패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읊조릴 때에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관용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멋진 미덕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문제시 삼는 것은 이러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덕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음을 선지자는 질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이스라엘 자손은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아합 왕이 치룬 전쟁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승리에 대해 아합은 자아를 찾는데 전쟁의 패자들 앞에서 승자로 인식합니다. 패자들 앞에서 자신을 승자로 인식했기에 여유와 관용

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또 다시 아합이 자기를 승리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너로 모시는 일을 제쳐두고, 눈앞에 보이는 패자들 앞에서 승자로서의 자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두 증인'은 '어떤 일에 대한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너의 자리에 모셔서 자아를 찾지 못하고, 패배자를 너로 삼아 승리자의 자아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의 목숨을 아합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대신하게 만드는 자아획득의 오류가 우리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로 모시는 일을 제쳐두고 대신에 배우자나 자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찾지 말라는 것이고, 혹은 직장이나 사장님 앞에서 직원으로서의 나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소유자로서의 나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아합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이유는 이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각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성속에서조차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만나는 어떤 대상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너로 모셔서 자아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의 모든 나는 상실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패배자들 앞에서 자신을 승리자로서 인식한 것 자체가 이미 자아상실이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자아를 찾기 전에 자녀를 통한 부모라는 자아를 갖는 것이 자아상실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전쟁이라는 특별한 사건에서 아합 왕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일상적인 자아상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적인 너로 모셔서 자아를 찾을 수 있으며 나머지 관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배우자의 의식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우선시한다면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할 수 있으며, 또는 직장에서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선적인 너로 모시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육체로 만나는 모든 너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든 배우자이든 직장인이든 그 너로 생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당신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만을 너로 모신 채로 교통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너로 모시고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자녀 직장 건강 등에 대해 죽어버린 많은 너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계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본래 하나님이 관계하시기로 되어있는 너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너로 모신다면 이 땅에서 너들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로 상대하시면서 관계하십니다.
우리의 관계하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자아의식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너들에게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게 됩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라는 의식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아내의 맞춤형인 최고의 남편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회사의 직장인이라는 의식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라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보다 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라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으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너로 모셔서 내가 되지 않는 한 육체를 통한 관계에서만 나를 찾는다면 육체가 죽을 때에 이 나는 상실되어 버릴 것인데 '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도 가능했던 것은 마음이 하늘에 다 가있습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너들을 통해서 내가 된 적이 없으므로 육체가 죽고 있는데도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조차 용서받기를 바라는 정말로 신앙적 아름다운 관용의 미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로 모신 자들에게서 나오는 관용이 참 덕일 수 있지, 패자를 열등하게 여기는 승리자의 의식 속에서의 관용은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교만의 고등차원의 표현일 뿐입니다.
아합은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벤하닷 대신 죽음을 맞으리라'는 예언을 받게 되고 22장에서 이름도 없는 병사가 쏜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개가 핥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상실의 일상이 우리에게 일깨워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으로 아합을 통해 드러내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육체로 만나게 되는 모든 너에 대해 죽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만을 너로 모시고 나가 됨으로서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이 너로 상대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